

■ 법률 칼럼

## 부모 시민권 취득 시 18세 미만 자녀의 자동 시민권 취득

2001년 시민권법에 따르면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시민권법 규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시민권법은 18세라는 나이 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 되기 위한 상세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는 영주권자 여야 합니다.

둘째,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현재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여건 3가지 요건 즉 1) 18세 미만 2) 영주권자 신분 3) 시민권 부모 와의 동거 중 한 가지만 충족이 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살의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17세 자녀는 시민권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가 되었을 때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 부모와의 동거 조항이 충족되지 않아 시민권 자동 부여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남은 이슈는 이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서류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함에 따라서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증가했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서류로 증명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여권을 미국 국무성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자녀와 그 부모의 가족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영주권 등을 국무성에 제출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여권이면 충분하지만,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우에 시민권 증서의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방법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N-600이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암호를 명시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도 N-400라는 시민권 증서 신청이 아닌 시민권 신청서를 미국에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 지원 대학 선택 시 고려할 요소



6월이다. 대학 열리 원서 마감까지 불과 4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11학년들은 이제 지원할 대학을 골라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미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은 약 4,000여 개. 이 가운데 10개 정도를 선택해 지원을 해야 한다. 최근 대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2~15개까지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10개가 합리적이다. 10개 대학 지원이 일반적이지만 상위권 대학에 꼭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학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합격률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학생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많은 학부모들은 '명성'을 꼽는다. 특히 한국 학부모는 대부분 '대학 이름값'을 대학 선택의 제1조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학비'를 무시할 수 없다. 학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무리 유명한 대학일지라도 그림의 떡이다.

미국 대학들의 학비는 3~6만 달러다. 여기에 기숙사비까지 합하면 부모가 부담할 금액은 10만 달러에 육박한다. 4년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면 중산층 가정은 자칫 파산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합격 가능성이다. 명성에 얹매어서 대학을 지원할 경우 자칫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다. 합격률 5% 미만의 대학들은 어떤 학업적 기록을 가진 학생들도 위험하다. 그런데 여전히 GPA에 취하고, SAT에 취해서 명성 있는 대학에만 원서를 넣는다면 실패를 자초하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은 명성과 교육의 질이다. 대체적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처럼 명성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 교육의 질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명성이 있다고 꼭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많은 주립대학들은 명성은 있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매우 뒤진다.

작은 규모의 사립대학들의 경우 그 명성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교수가 적은 인원의 학생을 밀도 있게 지도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대학들이 바로 리버럴 아츠 칼리지다.



그렇다면 전공은 얼마나 중요할까? 한국 학부모들은 '전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취업을 잘하려면 대학 명성보다 전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학 3학년부터 전공을 시작하기 때문에 입학할 시기에는 전공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입학할 때 수학을 전공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대학 3학년 때 컴퓨터 사이언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물론 대학마다 전공을 바꾸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전공 변경에 장벽이 없다.

사진/그래픽=shutterstock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